Eugene's FICC Update

Fixed Income 김지나_ 02)368-6149_ jnkim0526@eugenefn.com FX 차영후_ 02)368-6138_ yhcha@eugenefn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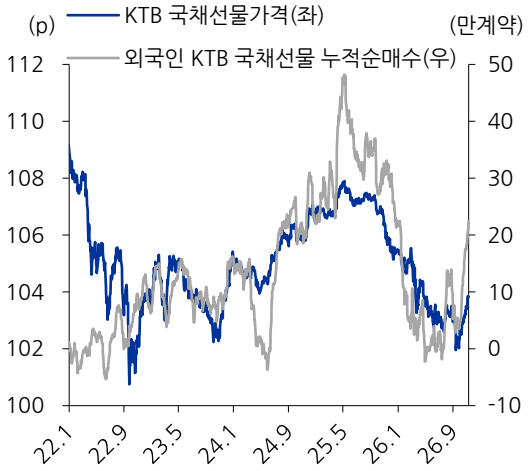
유진투자증권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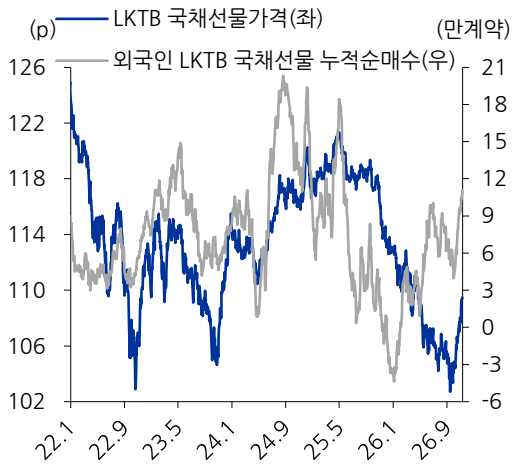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틱)

		11/10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633%	-0.6	-10.3	68.0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850%	-1.3	-15.1	46.5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21.7	22.4	26.5	43.2
	3년 국채 선물(KTB)	103.83	2.0	37.0	-161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09.48	9.0	137.0	-344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740%	17.7	10.8	126.8
	미국채 10년물	4.992%	10.7	2.7	82.4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25.2	32.2	33.4	69.6
	독일국채 10년물	3.324%	4.1	-1.5	46.9
	호주국채 10년물	4.990%	-1.4	-9.7	23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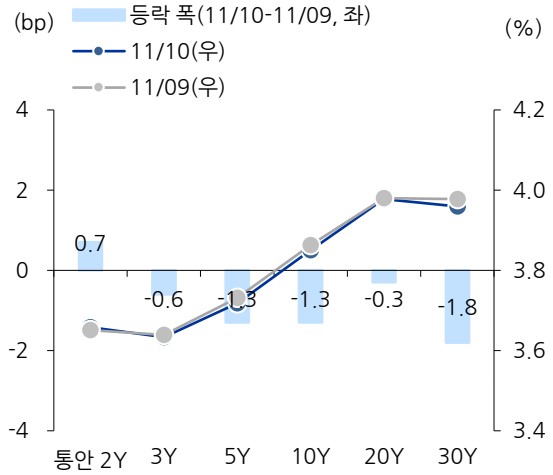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불 플래트닝 마감.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 유입 영향.
- 간밤 뉴욕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했고, 아시아 장에서 미국 금리도 상승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확대되며 국내 금리 상승폭 확대.
- 국내 코스피 등 주식 양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도 영향. 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및 현물 매수가 확대된 영향으로 금리 점차 하락폭 확대하기 시작. 국제유가 하락도 금리 하락 견인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전구간 급격한 약세 마감. CPI 영향.
- CPI, 전월대비 0.4% 상승 및 근원 CPI 전월대비 0.3% 상승하며 예상치 상회했음. 이에 장 초반부터 금리 상승폭 확대되기 시작.
- 연준 관계자들의 매파적 발언도 영향. 월러 이사는 근원 CPI가 0.3% 이상 나올 경우 12월 50bp 인상 가능성을 거론했고, 캔자스시티 및 댈러스 연은 총재도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금리 상승폭 추가 확대.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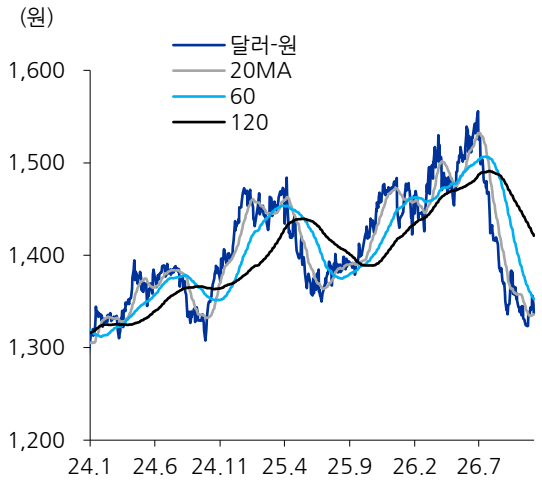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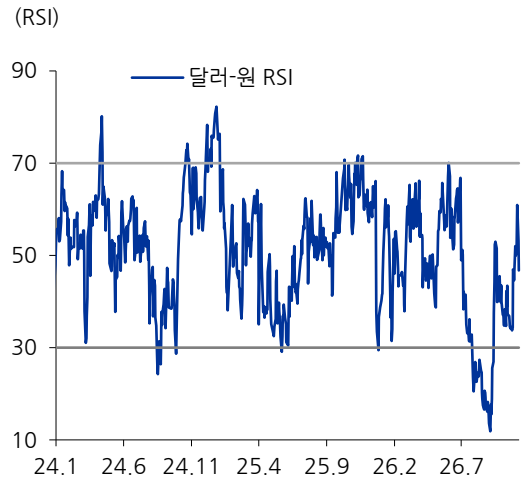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$)

		11/10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337.50	-0.7%	-0.3%	-7.1%
	달러지수	102.25	0.6%	0.4%	4.0%
	달러/유로	1.12	-0.5%	-0.3%	-5.0%
	위안/달러(역외)	6.68	0.1%	0.1%	-4.4%
	엔/달러	158.75	0.5%	0.0%	1.3%
	달러/파운드	1.33	-0.7%	-0.5%	-0.9%
	헤알/달러	5.58	1.4%	1.7%	1.2%
상품	WTI 근월물($)	86.44	-0.5%	-10.0%	50.5%
	금 현물($)	4,032.26	-2.6%	2.6%	-6.6%
	비트코인($)	73,885	-1.4%	-5.4%	-15.9%
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d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국제유가 하락과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전환에 전일 대비 -9.60원 내린 1,337.50원 마감(야간 1,344.50원).
-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이 진행되는 한 추가 공습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히면서 유가가 하락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며 원화 강세를 견인.
- 최근 낙폭이 컸던 반도체주가 반등하며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됐고,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코스피 순매수(약 3,600억원)로 돌아서면서 원화 상승을 지지.
- 간밤 美 물가의 예상 상회로 달러-원은 주간 대비 +7.00원 상승.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와 달러 강세가 원화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인덱스는 美 CPI 예상 상회와 추가 긴축 우려에 강세(DXY +0.6%).
- 美 10월 CPI는 전월비 0.4%, 근원 CPI는 0.3% 상승해 예상(각각 0.3%, 0.2%)을 상회. 에너지 상승률이 9월 5.2%에서 0.7%로 낮아졌지만, 주거비·의료·자동차보험 등 서비스물가 압력이 지속되며 근원물가는 3개월 연속 0.3% 상승.
- 발표 전 근원 CPI가 0.3% 이상이면 12월 50bp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는 월러 이사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, 실제 지표가 해당 수준을 기록하며 긴축 경계 강화. 이에 美 국채금리는 급등(2년물 +18bp, 10년물 +11bp).
- 유가 안정만으로 물가 부담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12월 FOMC 금리 결정 전까지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.